

### 3. 자전거이론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

수년 전에 필자는 새로운 자전거를 개발하고 이 자전거의 주행실험을 하기 위하여 대학원생들과 여의도광장에 나가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광장 한쪽에 젊은 엄마와 같이 나와 자전거를 배우는 여자 어린이가 있었다. 이 어린이의 엄마는 어린이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탈 것을 누차 강조하였다.

다른 한쪽에서는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자전거 동호인 클럽이 특별히 개조된 자전거를 가지고 자전거 묘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이들은 달리면서 바퀴를 번



MT - 150

1993년 공학연구소에서 자전거 탄생 150주년을 맞아 개발된 산악용 자전거. 우리가 사양이라고 부르는 산업에서도 기존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첨단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MT - 150X

MT-150의 차세대 모델. 체인과 톱니기어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구동장치, 계기판 등 모든 장치가 복합재료로 제작되어 자전거 몸체 내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같이 들기도 하고 한쪽 바퀴로 회전도 하였는데, 연습 중에 자주 넘어졌다. 간혹 넘어지지 않고 묘기를 성공하면 동료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좋아하곤 했다.

자전거를 배우는 이 두 팀을 비교하여 보면, 엄마에게 자전거를 배우는 여자 어린이 쪽은 마치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았고, 묘기를 배우는 중·고생들은 마치 넘어지려고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자전거를 배우는 모습을 우리 사회분위기에 적용하여 보자. 우리 주위에는 무슨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혹시 실수를 하지 않을까, 혹시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그 일 자체를 미루거나 피해가는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도중에 해답이 애매모호한 질문을 하면 극구 대답하기를 피하곤 한다. 혹시 실수하여 지적당할까 봐 그러는 것이다. 기업과 산학협동 연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즉시 착수하면 되는 일도 실패할까 봐 망설이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의 정책수립도 혹시 감사과정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까 봐 불필요한 작업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

력을 허비하는 것을 보았다.

### ■ 실수한 만큼 터득한다

이러한 행태가 널리 퍼지다 보니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자조적인 말이 통용되고 있다. 즉, “실수를 하면 용서받지 못하니 일 자체를 안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수만은 하지 말자”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실수가 잦을수록, 시행착오가 많을수록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나왔던 원로급 탤런트는 녹화 과정에서 본인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서슴없이 N.G. (No Good)를 낸다고 하였다. 마음에 안 드는 연기를 N.G. 없이 진행한 날은 하루종일 마음이 째째하다고 하였다.

필자가 학생 때 따라다니던 선배는 승마교관이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말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어려운 승마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다고 했다. 말을 타다가

떨어지면 손살같이 달려와서는 ‘낙마턱’을 내라고 했다. 말에서 또 떨어졌으니 그만큼 승마기술이 발전된 셈이라는 것이었다.

한강에서 요트를 배우는 대학생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다. 요트를 잘 타려면 배가 자주 전복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옆에서 윈드서핑을 배우고 있는 중년남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3천 번쯤 물에 빠지면 윈드서핑의 도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스키장에서는 가파른 슬로프에서 유연한 동작으로 관문을 통과하는 선수들이 부러웠다. 옆에 있던 스키강사에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탈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는 한참 생각하더니 “약 200일쯤 가파른 슬로프에서 매일 수십 차례씩 넘어지면 됩니다”라고 하였다.

미국대학을 방문하는 중에 서부극에 나오는 명사수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조교수를 만났다. 그의 논문주제는 “어떻게 하면 서부극의 명사수처럼 조준을 하지 않고도 명중시킬 수 있는가?”였다. 박사논문이 끝날 때쯤에는 그도 명사수가 되었는데 약 2만 발

을 쏘았다고 했다. 또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야 말았다. “명사수가 되는 요령은 무엇이나?” 그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던 모양이다. 슬며시 웃더니 “맞추든 못 맞추든 걱정하지 말고 2만 발을 쏘면 자연스럽게 명사수가 됩니다” 라고 하였다.

### ■ 실수를 격려하는 사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 느낀 점은 남다른 업적을 내고 싶으면, 어려운 기술을 습득하고 싶으면, 여러 번 실수를 하면 된다는 것이다. 우리 젊은 세대는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다. 하라는 말은 고작해야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하는 내용밖에 더 있는가? 시험을 통해서 배워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시험에서 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 자체보다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자전거를 배우면서 꼭 많이 넘어져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자전거를 배운 사람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여의도광장에서나 잘 탈 수 있을 것이다.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배운 사

람만이 복잡한 시장골목에서, 비좁은 산길에서, 교통이 복잡한 도로에서도 잘 탈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야에 자전거이론을 적용해 보자. 자전거를 넘어지지 않고 배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정부의 고위층은 중요한 국가사업을 과감히 추진하기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사업을 보류하려 할 것이다. 장관들은 시행착오를 각오하기보다는 시행착오가 없을 업무만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연구소에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연구는 착수하지 않을 것이다. 기업의 임원들은 수요가 확보된 제품만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야망을 품고 기업에 취직한 신입사원은 이 일 저 일을 시도하다가 결국 “실수만은 저지르지 말자”는 직장인 철학을 갖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대통령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장관을 표창하여야 한다. 국가발전에 기여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선의의 실수를 자주 하는 자식들을 적극 격려하여야 한다. 크게 될 인물이기 때문이다.

학문적으로 큰 업적을 내고 싶은 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가능한 한 실수를 많이 저질러야 하며, 지도교수로부터 가능한 한 지적을 많이 받아야 한다. 젊은 사원들은 신입사원시절에 사소한 실수를 많이 저지를 것을 업무목표로 삼아야 한다. 얼마나 좋은가? 실험을 잘못했다고 때리는 교수를 보았는가?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서 신입사원을 파면시키는 경영자를 보았는가?

만일 교수, 경영자가 실수를 용납하지 않거나, 실수 내용을 지적하지도 않고, 시정해 주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건강에 좋다.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배우는 장면을 보며 얻은 교훈은 “크게 발전하고 싶으면 많은 실수를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